



러시아는 악인가? 전쟁에 대한 현실주의의 입장

백승무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패배를 예정한 전쟁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연장전까지 1:1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연장 후반 6분, 프랑스 주장 지네딘 지단은 마테라치의 가슴을 머리로 박아 퇴장을 당하고, 프랑스는 승부차기에서 3-5로 패한다. 18년 현역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경기에서 지단은 폭력을 행사한 저질 선수로 낙인찍혔다. 사람들은 하나 같이 ‘왜?’라고 물었다. 그는 왜 팀을 패배의 수렁에 밀어 넣었을까? 그는 왜 불명예스러운 박치기 선수로 기억되려 했나? 그는 왜 규칙을 파괴하고 운동장에서 쫓겨났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뒤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 거로 생각했다. 알려진 바로는 마테라치가 지단의 누이와 어머니를 모욕했다고 한다. 많은 이가 지단의 폭력을 옹호했다. 그는 비록 축구라는 충성 없는 전쟁에선 패했지만, 삶에서는 이겼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그는 가족의 명예는 지켰다.

줌인 vs 줌아웃

푸틴의 폭거를 지단의 ‘의거’에 비유하는 건 무리지만, 몇 가지 시사점은 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게을렀다. 푸틴은 왜 침략했을까? 그 많은 비난과 제재를 각오하고 왜 침략을 감행했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묻지 않았고 대답 또한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폭력은 안 된다,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윤리적 잣대만 강조했다. 경기의 패자가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역설도 무

시했다. 푸틴이 말한 먼 훗날의 평가도 귓등으로 들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중시했고, 윤리만 따졌다. 실제로 미국 중심의 서방 세계는 선악의 윤리와 이 전쟁 자체만 쟁점화하는 줌인(zoom-in) 전략을 고수했다. 반면 러시아는 40년에 걸친 나토의 동진, 유럽과 우크라이나와의 다면적 관계를 포괄하는 줌아웃(zoom-out) 전략에 치중했다. 전자는 ‘역시 러시아는 사악해’라고 외쳤고, 후자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라고 항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 mk.ru)

‘협상할 용기’

서방의 줌인 전략은 지엽말단을 지우고 오직 윤리만을 생각하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국제관계에 선악이 있는가? 선악의 이분법은 항상 강자의 논리를 감싼 당의정에 불과했다. 전



쟁 직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군과 체첸·시리아 용병들이 저지르는 잔악함과 흉포함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무시무시함만 보고 전쟁 뒤에서 펼쳐지는 전체 드라마를 보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일갈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가 도발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협상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방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천적인 분의 공정하고 냉철한 해안이다. 윤리를 저버리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외치는 자야말로 반윤리에 동조하는 자이다. 1953년 우리가 그랬듯이, 타협과 절충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

왜 우리는 러시아에만 냉정하고 엄격한가?

전쟁이 나쁜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악한 만행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이다. 좋은 전쟁은 없다. 살육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전쟁’과 ‘범죄’를 결합한 전쟁 범죄란 동어반복이다. 지금 전쟁이라는 범죄는 팔레스타인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이 전쟁을 ‘중인’하면 원인 제공자는 지난해 10월 기습적 인질 사건을 벌인 하마스 정권이다. 하지만 사태를 조금만 ‘중아웃’해 봐도 팔레스타인 땅을 무단 점령한 이스라엘이 범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서방은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이스라엘을 맹비난해야 한다. 민간인을 향해 마구 총질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 수백 명을 고문하고 암매장한 전범국 이스라엘에 대해 경제 제재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정의가 그 달달한 것이 남아 있을랑가?”

전쟁에 부역하는 자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미국이다. 작년 한 해 미국의 가스업과 무기 사업은 폭발적인 수익을 챙겼다. 이미 전쟁 지원금 950억 달러 중 40%가 무기 사업으로 회수됐고, LNG 수출은 203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후 복구 사업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피를 흘리고, 유럽은 돈을 쓰고, 미국은 돈을 번다”라는 말이 사실로 판명 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도 적잖은 혜택을 보고 있다. 전차, 자주포 등 우리 무기들이 역대 최고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다. 기뻐할 일인가? 우리 손으로 만든 포탄이 전쟁터에서 살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많이 팔았다고 자랑하는 언론은 당장 (꺼)버려야 한다. ‘오로지 윤리’만 중요하다면, 피 냄새가 나는 방산업체의 제품도 불매해야 한다.

전쟁이 다가온다

우리의 역사는 윤리와 배덕, 정의와 불의 사이를 절묘하게 균형을 온 여정이었다. 사대했으나 비굴하지 않았고, 조아렸으나 구차하지 않았다. 800여 회 외침 중 승리의 기록도 알 길이 박혀 있다. 균형 감각과 ‘밀당’ 정신은 한반도의 우성 유전자였다. 순수한 윤리와 명백한 정의에 핏대를 세우는 자, 협상과 타협을 경멸하는 자, 명분과 이상을 이상화하는 자는 설 자리가 없었다. 균형 외교의 무게중심이 훼손될 때마다 나라에 큰 환란이 덮쳤기 때문이다.

전쟁 거부감과 친미 정권의 편향 외교로 인해 대러 균형점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러시아가 ICBM과 핵무기 핵심 기술을 북한에 넘겨주기 직전이다. 남의 전쟁 막느라 우리 전쟁이 불쑥 다가왔다. 반러 정서가 이 정권의 외교 편향을 두둔하는 지렛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비난할수록 한반도 전쟁 위험성이 올라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북러 간 밀월 관계를 끊고 러시아를 다시 우리 편으로 당겨야 한다. 우리 전쟁을 막을 현실주의적 전략이다.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협상할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 

